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이야기글 쓰기 능력*

윤 효 진** · 김 보 립***

The Narrative Writing in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Yoon, Hyojin ** · Kim, Borim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arrative writing abilities of second-grade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Writing compositions were analyzed using rating scale for overall writing quality as well as vocabulary and morphosyntactx. **[Method]** Fifteen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and 17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participants scored at or above 85 on a nonverbal intelligence test, and the word decoding test of the KOLRA ensuring they had no difficulty reading the writing task.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were identified as those scoring below the 10th percentile on the receptive vocabulary test of REVT, whil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cored at or above 20th percentile.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scored significantly lower than their peers in sentence completeness, syntax, grammar, spelling, and cohesion of the K-CELF-5 writing index. Additionally, these children obtain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on NDW, TNW, T-unit, MLT-unit, and clausal density compared t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Conclusion]** Vocabulary knowledge is a sensitive indicator of writing quality in children. The finding demonstrated that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exhibit poor vocabulary usage, frequent grammatical errors, short and simple sentences, and frequent spelling err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vocabulary delay may require focused evaluation and appropriate instruction in writing from early stage of writing development.

Key Words : Narrative Writing, Vocabulary Delay, Rating Scale, Vocabulary, Morphosyntax

* 이 논문은 조선대학교 연구지원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2021)

** 제 1저자,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부교수(hyoon@chosun.ac.kr)
Associate Professor, Chosun University

*** 공동저자,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박사과정생
Doctoral Student, Chosun University

I. 서론

구어와 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표현하는 데 어휘지식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어휘에 노출되기 시작하며, 인지발달과 함께 세상의 다양한 사물의 개념 등에 대한 어휘지식이 확장된다. 어휘지식이 부족할 때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제한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제한은 맥락이 있는 구어보다 탈맥락적인 조건인 쓰기에서 더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어휘의 부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영유아기부터 읽기와 쓰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학령기까지 어휘습득과 발달은 중요하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읽기와 쓰기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학습의 목표와 수단이 된다. 이때 학령전기에 습득한 어휘를 포함한 언어능력은 읽기와 쓰기의 토대가 된다(이한나, 윤희진, 2021). 점차 학습 수단으로서 읽기와 쓰기를 활용해 다시 어휘지식을 확장한다. 초등 저학년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법을 학습하며, 이는 교육과정의 목표이기도 하다.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이를 글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것은 내용 전달의 필수요인이다. 그렇다면 어휘지식이 부족한 아동의 글쓰기 능력은 어떠한 것인가? 본 연구는 또래에 비해 어휘력이 낮은 어휘발달 지연 아동의 글쓰기 능력을 살펴봄으로써 어휘지식의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쓰기는 운동, 지각, 언어 및 인지 능력의 활성화와 이들의 협응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다(Kellogg, 1994; Roth, 2000). 이 중에서도 언어능력, 특히 학령전기에 습득한 구어 능력은 읽기와 쓰기 발달의 기초가 되며, 이후의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Lockrell & Connelly, 2009).

글쓰기에 필요한 중요한 구성요인은 쓰기 발달 모델에 잘 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발달 모델은 simple view of writing(Juel et al., 1986)과 이를 확장한 not-so-simple view of writing(Berninger & Winn, 2006) 모델이다. 이 모델들은 작문(composition)은 손글씨 쓰기(handwriting)와 철자 쓰기(spelling)를 포함한 전사(transcription)와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이를 언어로 변환하는 텍스트 작성(text generation)의 두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제안하였다.

처음 쓰기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때에는 전사(transcription) 능력이 중요하다. 손글씨 쓰기는 손의 소근육을 사용하여 글씨를 쓰는 물리적인 과정이며, 이때 글씨는 적절한 철자법에 맞게 써야 한다. 즉, 단어를 구성하는 음운적 정보(음소)를 시각적 형태(글자)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쓰기 발달 단계에서는 음소와 자소의 관계를

습득하여 철자법에 맞게 쓰는 능력이 글쓰기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한다(Juel et al. 1986). 점차 쓰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개별적인 단어와 문장 수준의 쓰기를 넘어 하나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이때 적절한 어휘와 문법 및 구문지식을 사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Hayes와 Flower (1980)는 능숙한 글쓰기는 아이디어를 계획하는 단계, 아이디어를 적절한 어휘, 구, 절, 문장으로 변환하는 단계, 그리고 자신의 글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 단계가 되면 글의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휘, 문법 및 구문 능력 등의 언어적인 능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구어 산출과 달리 글쓰기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다. 글쓰기는 글씨 쓰기에 필요한 운동능력, 생각을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 대화 상대자와 시간적, 공간적 맥락이 다른 탈맥락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어보다 인지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구어 산출보다 글로 작성할 때 더 어려움을 경험한다(Gillam & Johnston, 1992).

글쓰기의 발달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어휘, 구, 절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Lockrell & Connelly, 2009). 어휘지식은 글쓰기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휘지식이 부족한 아동은 글의 길이와 내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Dockrell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글쓰기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했을 때 어휘가 텍스트 구성의 질(quality)에 유일하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Berninger et al. (1992)의 연구에서도 5-9세 아동의 텍스트 작성 능력은 어휘를 포함한 언어성 지능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구어 어휘지식이 부족한 아동이 작성한 텍스트의 질은 또래 수준의 어휘지식을 가진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ishop & Clarkson, 2003).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언어발달장애나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전반적인 언어영역에서 어려움을 가지는 아동이다. 그러므로 어휘 능력만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언어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텍스트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어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Lockrell & Connelly, 2009), 어휘지식이 부족한 아동의 글쓰기의 수준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어휘가 글쓰기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은 어휘지식이 글쓰기 수준을 평가하는 예민하고 적절한 지표임을 보여준다(김애화, 2016; Olinghouse & Leaird, 2009). 또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어휘와 글쓰기 능력이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특정 시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령기 전체에 걸쳐 어휘지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어휘와 문장으로 변환한 텍스트 작성에 대한 평가는 어

휘, 문장, 전반적인 텍스트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글쓰기는 의미나 문법, 조직화와 같은 언어 요소를 척도 점수(rating scale)로 평가하기도 하며, 글에 포함된 단어의 수, 문장의 길이나 구문 복잡성 등을 분석하기도 한다(Hall-Mill & Apel, 2015; Price & Jackson, 2015). 척도 점수는 글의 구성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채점 방식이다. 또한 아동이 작성한 글의 단어나 문장 수준을 생산성(productivity), 복잡성(complexity), 정확성(accuracy)로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어휘와 문장 수준에서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Koutsoftas(2016)는 아동의 쓰기 자료는 발달과 지연을 보여주기에 신뢰롭고 예민한 지표이며, 어휘와 구문 수준에서의 생산성, 복잡성, 정확성에 대한 분석이 이를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어휘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낱말 수(number of different words, 이하 NDW), 총 낱말 수(total number of words, 이하 TNW)로 주로 분석한다. 문법 및 구문은 T-unit으로 전사한 후에 총 T-unit 수(이하 T-unit), T-unit 당 평균 낱말 길이(이하 MLT-unit), 절 밀도(clausal density, 이하 CD)를 의미하는 T-unit 당 종속절 수가 대표적인 분석이다. 어휘와 구문 분석 지표들은 다시 생산성(TNW나 총 T-unit 수)과 복잡성(NDW, MLT-unit, 절 밀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안은주, 김정미, 2010; Koutsoftas, 2016; Puranik, Lombardiono & Altmann, 2008; Scott, 2020). 기존 연구 결과들은 언어발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어휘가 적고 다양하지 않으며, 문장의 길이가 짧고 단순하다고 보고하였다(유경, 정은희, 2007; Lockrell & Connelly, 2009; Puranik et al., 2008).

종합하면, 글쓰기는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지식 등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단순한 글자 쓰기를 넘어 문장과 텍스트 수준의 글을 작성하려면 언어능력이 중요한 토대이며, 특히 어휘지식은 내용 전달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초등 2학년 교육과정의 쓰기 목표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간단한 문장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므로 학령기 초기부터 내용을 구상하고 이를 글로 조직력 있게 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부 연구에서 초기 쓰기 단계에서도 어휘 지식이 손글씨 쓰기와 철자보다 글쓰기의 질을 설명하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Babayigit and stainthorp, 2010)를 고려하면 글쓰기가 발달하는 시기에 어휘지식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 2학년의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학년을 일치시킨 아동의 글쓰기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공식검사인 K-CELF-5의 쓰기 검사를 사용하여 이들의 글쓰기 특성을 살펴보았다. K-CELF-5의 쓰기 검사는 문장의미완성도, 문법, 구문, 철자법, 응집성 지표에 대해 척도 점수를 사용하여 채점한다. 둘째, K-CELF-5의 쓰기 채점에는 어휘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휘 및 구문 수준에서의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휘는 NDW와 TNW, 구문은 T-UNIT, MLT-unit, CD를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초등 2학년 어휘발달지연 아동 15명과 학년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7명 총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II(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II; C-TONI-II, 박혜원, 2014)에서 지능지수가 85점 이상으로 비언어성 지능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한국어 읽기검사(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배소영 외, 2015)의 단어해독 검사에서 표준점수 85점 이상으로 이야기글 쓰기의 지시문과 과제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학교 교사 및 주양육자로부터 신경, 청각, 시각, 정서 및 행동 등의 장애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에 대한 집단 선정은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의 수용어휘 검사를 사용하였다.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수용어휘 검사에서 10%ile 미만인 아동을 선정하였으며, 일반 아동은 REVT의 수용어휘 검사에서 20%ile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야기글 쓰기의 문법 및 구문능력을 해석하기 위한 추가 검사로 두 집단의 모든 대상자에게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외, 2004)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아동은 30%ile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평균은 약 40%ile, 일반 아동은 약 78%ile이었다.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의 연령, 비언어성 지능, KOLRA의 단어해독, 수용어휘 점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에 연령, 비언어성 지능, 단어해독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수용어휘($t=-8.84$, $p<.001$)와 구문의미이해력검사($t=-3.23$, $p<.01$)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VD (n=15)	TD (n=17)	t
Age(month)	101.78(3.66)	102.76(3.49)	-.760
K-CTONI-2	98.71(11.07)	101.35(10.42)	-.682
REVT	73.92(5.49)	105.29(13.76)	-8.59***
KOLRA	92.57(14.34)	99.11(11.69)	-1.40
KOSECT	59.64(16.76)	79.71(17.53)	-3.2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VD=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 $p < .01$, *** $p < .001$

K-CTONI-2 = Standard score of the Korean version of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2nd edition (Park, 2014); REVT = Raw scores of the receptive vocabulary of the REVT(Kim et al.,2009); KOLRA = Standard scores of the word decoding of the KOLRA(Pae et al.,2015); KOSECT=Percentile rank of the Korean Sentence Comprehension Test(Pae et al., 2004)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한국판 핵심언어 임상평가(Clinical Evaluation of Language Fundamentals-Fifth Edition, K-CELF-5, 배소영 외, 2023)의 쓰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충분한 글자료를 수집하여 쓰기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초등 1~2학년 용의 과제 2개 외에 3~4학년용 과제 2개를 추가하여 총 4개의 글 쓰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쓰기 검사는 제목과 도입 문장, 문장의 첫 일부 어절만 제시된 미완성 문장을 읽은 후에 아동은 미완성 문장을 완성하고, 추가적으로 1~2개의 문장을 완성하도록 요구하였다. '현장 학습과 가방 싸기' 주제는 제목 및 앞의 문장과 이어지도록 1 문장을 더 쓰는 과제이다. '개학날과 아침 조회'는 추가적으로 2문장을 더 쓰도록 요구한 과제이다.

아동이 제목, 도입문장, 미완성 문장을 읽은 후에 각 과제에 맞게 추가로 1~2 문장을 더 쓰도록 요구하였다. 모든 문항은 한 번에 하나씩 제시했으며, 각 문항 당 15분의 제한 시간을 두었다. 15분이 지나면 작성하였던 문장까지 작성한 후 검사를 종료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초등 2학년 학기 말인 12월 말~1월 초에 진행하였다. 검사는 초등학교 내 소음이 없는 조용한 교실에서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 선정을 위한 K-CTONI-2(박혜원, 2014), REVT(김영태 외, 2009), KOLRA(배소영 외, 2015)를 먼저 실시하였다.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 선정 기준에 맞는 아동에게 쓰기 검사와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외, 2004)를 실시하였다. 검사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검사는 언어병리학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는 검사 실시 전 검사 실시와 채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각 검사는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의 순서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결과 처리

본 연구는 K-CELF-5의 1~2학년용과 3~4학년용 쓰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K-CELF-5의 쓰기 채점 규칙에 따른 분석을 하였으며, 아동이 4개의 과제에서 작성한 총 6개의 문장에 대해 NDW, TNW, T-UNIT, MLT-unit, CD를 분석하였다.

1) K-CELF-5 쓰기 분석

우선 K-CELF-5의 채점 규칙에 따라 아동의 쓰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쓰기자료는 문장의미완성도, 구문, 문법, 응집성, 철자법의 5가지 지표에 대해 척도 점수로 분석한다. 문장의미완성도, 구문, 문법 척도는 미완성 문장은 제외하고 아동이 추가적으로 작성한 문장에 한해서만 채점하였다. 응집성과 철자는 미완성 문장과 추가적으로 작성한 문장 모두를 바탕으로 채점하였다.

추가 문장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문장의미완성도는 문장의 의미가 적절하고 완결된 문장으로 제시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의미의 적절성과 문장의 완결성 여부에 따라 2점 척도(0~1점)로 채점하였다. 구문은 아동이 쓴 구문의 복잡성에 대한 지표이며, 3점 척도(0~2점)로 채점하였다. 복문이면 2점, 복문이지만 연결어미 사용 등의 오류가 있으면 1점, 단문이면 1점이며, 적절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문법은 문법 오류의 포함 여부에 따라 2점 척도(0~1점)로 채점하였다. 문법적 오류가 있으면 0점, 오류가 없으면 1점으로 채점하였다.

철자와 응집성 과제는 미완성 문장과 추가 문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철자는 맞춤법,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에 대한 지표로 4점 척도(0~3점)로 채점하였다. 미완성 문장과 추가적으로 작성한 문장에서 오류가 없으면 3점, 1~2개의 오류가 있다면 2점, 3~4개의 오류는 1점이며, 5개 이상의 오류가 있으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위의 4개의 지표가 글의 미시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면 응집성은 작성한 글의 거시적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제목, 도입 문장과 아동이 작성한 글이 얼마나 긴밀하고 응집력 있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현장 학습'과 '가방 싸기'는 추가적으로 1 문장을 더 쓰는 과제이며, 3점 척도(0~2점)로 채점하였다. 제목, 도입 문장, 미완성 문장과 응집력 있

게 연결된 문장이면 2점, 미완성 문장과 추가 문장 중 한 문장만 적절하게 연결되었다면 1점, 2문장 모두 응집력이 결여된 문장이라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개학날'과 '아침 조회'는 2문장을 쓰는 과제이며 4점 척도(0~3점)이다. 미완성 문장과 추가적으로 작성한 2문장이 제목 및 도입 문장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었다면 3점, 2 문장만 응집력이 있는 문장이라면 2점, 응집성이 결여되고 비논리적인 글이라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아동이 4개의 과제에서 모두 만점을 받는다면 문장의미완성도는 6점, 구문은 12점, 문법은 6점, 철자는 12점, 응집성은 10점으로, 쓰기 총점은 46점이다.

2) 어휘 및 구문 측면에서 분석

둘째, 4개의 쓰기 과제에서 미완성 문장 외에 아동이 추가적으로 쓴 6개의 문장을 어휘와 구문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어휘적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낱말 수(NDW)와 총 낱말 수(TNW)를 분석하였다. 이때 낱말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포함하였다.

구문적 측면에서는 총 T-unit 수(T-unit)와 T-unit 당 평균 낱말 길이(MLT-unit), 절 밀도(clausal density)를 분석하였다. T-unit은 권유진, 배소영(2006)과 권유진, 진연선, 배소영(2018)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MLT-unit은 총 낱말 수/총 T-unit 수로 계산하였으며, 절 밀도는 종속절 수/총 T-unit 수로 계산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연구자와 박사과정 대학원생 1인이 전체 자료의 20%를 분석하였다. K-CELF-5 쓰기 채점에 대한 신뢰도는 97.05%, NDW, TNW, T-UNIT과 종속절 수에 대한 신뢰도는 92.3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의 통계처리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아동과 일반 아동의 쓰기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SPSS for Windows 29.0을 사용하였다. 첫째,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K-CELF-5의 6가지 쓰기 지표(문장의미완성도, 구문, 문법, 철자법, 응집성 및 쓰기 총점)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두 집단이 어휘와 구문 측면(NDW, TNW, T-unit, MLT-unit, CD)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두 집단 간 K-CELF-5 쓰기 지표 점수의 차이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쓰기 능력(문장의미완성도, 구문, 문법, 철자법, 응집성 및 쓰기 총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술통계 결과,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문장의미완성도, 구문, 문법, 철자법, 응집성과 쓰기 총점 모두에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아동은 4개의 쓰기 과제에서 총 6개의 새로운 문장을 작성해야 한다. 일반 아동이 대부분의 문장을 의미적으로 적절하고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했다면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약 4.8개의 문장을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점 만점인 구문 지표에서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평균 6.76의 점수를 받은 반면 일반 아동은 평균 9.41점으로 나타났다. 문법적인 오류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문법 지표에서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평균 점수는 3.35점, 일반 아동은 5.11로 나타났다. 철자,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정확하게 썼는지를 살펴본 철자 지표는 총 12점 만점이다.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평균적으로 3.23점이었으며, 일반 아동은 5.1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집성 지표는 아동이 제목 및 도입문장과 의미적으로 연결되며 응집력 있는 글을 작성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이며, 10점이 만점이다.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평균 6.52점인 반면, 일반 아동은 9.29점으로 수행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 각 쓰기 지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문장의미완성도는 $t=-2.61$, $p<.05$, 구문은 $t=-3.10$, $p<.01$, 문법은 $t=-3.43$, $p<.01$, 철자는 $t=-3.47$, $p<.001$ 로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즉,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의미적으로 완성된 문장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덜 복잡한 문장을 작성하였으며, 빈번한 문법 오류와 철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글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살펴본 응집성에서도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응집성은 $t=-4.00$, $p<.001$ 로 나타나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응집력 있게 문장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가지 지표에 대한 총점에서도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4.89$, $p<.0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results of K-CELF-5' each index

	VD	TD	<i>t</i>	Cohen's <i>d</i>
Sentence completeness (max=6)	4.88(1.65)	5.94(0.24)	-2.61*	-.89
Syntax (max=12)	6.76(2.88)	9.41(2.00)	-3.10**	-1.06
Grammar (max=6)	3.35(1.90)	5.11(0.92)	-3.43**	-1.17
Spelling (max=12)	3.23(3.09)	7.23(3.13)	-3.74***	-1.28
Coherence (max=10)	6.52(2.71)	9.29(0.84)	-4.00***	-1.38
Total score (max=46)	24.76(9.31)	37.00(4.40)	-4.89***	-1.6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pm SD); VD=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 $p < .05$, ** $p < .01$, *** $p < .001$

2. 두 집단 간 어휘 및 구문 측면에서 점수 차이

4개의 쓰기 과제에서 아동이 쓴 총 6개의 문장에 대해 어휘(NDW, TNW)와 구문(T-unit, MLT-unit, CD)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모든 지표에서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아동이 쓴 6개의 문장의 어휘를 분석했을 때 NDW의 평균은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23.41, 일반 아동은 39.23, TNW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평균이 23.29, 일반 아동은 42.67로 나타났다.

구문을 분석한 결과 총 T-unit 수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5.23, 일반 아동은 6.41로 나타났으며, MLT-unit(T-unit 당 낱말 수)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평균이 5.23, 일반 아동은 6.4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절 밀도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평균이 .18, 일반 아동은 .74로 일반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어휘지표인 NDW($t=-4.96$, $p<.001$)와 TNW($t=-4.91$,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면서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쓴 낱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법 및 구문지표인 총 T-unit 수는 $t=-3.18$, $p<.01$, MLT-unit은 $t=-3.058$, $p<.01$, CD는 $t=-4.94$, $p<.001$ 로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문장의 길이가 짧고 복잡성 측면에서도 단순한 문장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results of vocabulary and morphosyntax of written narrative

		VD	TD	<i>t</i>	Cohen's <i>d</i>
word level	NDW	23.41(7.49)	39.23(10.90)	-4.93 ^{***}	-1.69
	TNW	25.29(9.17)	42.67(14.32)	-4.91 ^{***}	-1.44
sentence level	T-unit	5.23(1.39)	6.41(.61)	-3.18 ^{**}	-1.09
	MLT-unit	4.91(1.32)	6.59(1.84)	-3.05 ^{**}	-1.04
	CD	.18(.18)	.74(.42)	-4.94 ^{***}	-1.6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VD=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 *p* <.01, ^{***} *p* <.001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 2학년의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글쓰기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부 연구는 어휘지식이 글씨 쓰기와 철자보다 작문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Babayigit & stainthorp, 2010)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휘지식이 부족한 아동의 글쓰기 능력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초등 국어교육과정에서도 2학년의 쓰기 목표는 글자를 정확하게 쓰고,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 자신의 경험 등에 대해 짧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맞춤법뿐 아니라 초기 작문 쓰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작문 특성을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 및 교육 현장에서 쓰기 평가 및 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쓰기 지표 모두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K-CELF-5의 쓰기 지표 모두에서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총 5개의 지표이며, 문장을 의미적으로 적절하며 완성된 문장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의미완성도 지표, 구문의 복잡성을 살펴본 구문 지표, 문법적인 오류 유무를 살펴본 문법 지표, 철자, 문장부호, 띄어쓰기를 살펴본 철자 지표, 그리고 전반적인 글이 주제 및 도입문장과 매끄럽고 응집력 있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본 응집력 지표이다.

일반 아동은 대부분 의미적으로 적절하며 완성된 문장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 어휘발달지연 아동도 대체적으로 문장을 적절하게 쓰기는 하였지만 일반 아동과 비교하면 의미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문장으로 쓰는 경우가 더 빈번하였다(예: 그

린 걸 볼 수 있어서 기뻐). 아동이 작성한 총 6개의 문장에 대한 문법 및 구문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일반 아동은 문법적인 오류가 거의 없다면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문법형태소의 오류도 관찰되었다. 또한 일반 아동은 주로 복문으로 문장을 썼다면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단문 작성이 더 빈번하였으며, 문법적인 오류로 인해 복문으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어휘발달지연 아동도 모두 공식화된 구문이해 검사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아동이었다. 하지만 문장을 쓸 때에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문법적 오류가 빈번하고 구문복잡성 측면에서도 더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아동이 구어에서는 문장 이해 및 산출 능력에 어려움이 없지만 쓰기에서는 문법적 오류와 단순한 문장 산출이 빈번하다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Newcomer & Barenbaum, 1991; Scott & Windsor, 2000). 일부 연구들은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쓰기에서의 문법 오류는 또래 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뿐 아니라 나이 어린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보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면서 각 집단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Scott & Windsor, 2000).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령기 어휘지식이 부족한 아동이나 전반적으로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을 평가할 때 구어뿐 아니라 문어에서의 문장산출 능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문법 및 구문 특성은 각 문장에 대한 T-unit 분석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다.

철자, 문장부호와 띄어쓰기를 3점 척도로 채점한 철자 지표에서도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2학년 시기는 아직 철자법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소-자소가 불일치하는 단어에서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박혜옥, 정용석, 2008). 전반적인 철자 오류 특성을 살펴보면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음소-자소 규칙형 단어에서도 오류가 빈번하였으며(예: 선생님하고 → 선생님아고), 때때로 한글의 철자법에 맞지 않는 단어나 어절(예: 좋아해서 → 좋우+해서)로 쓰는 모습도 나타났다. 일반 아동은 음소-자소 일치형 단어에서의 오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불일치형 단어에서의 철자법 오류(했어요→해써요)가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문장부호 쓰기와 관련해서는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마침표는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여 거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 2학년 시기 대부분의 아동이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마침표는 적절하게 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Puranik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 3학년 이상이 되면 마침표는 쓰기 발달을 보는 예민한 지표는 아닌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2학년의 어휘발달지연 아동 아동도 대부분 적절하게 문장부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문장 구조에 대한 구문인식 능력의 증가와 같은 언어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반면 쉽표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부적절한 위치에서 사용하거나 쉽표가 필요한 문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쉽표 사용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띄어쓰기 오류는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빈번하였다. 초등 2, 4, 6학년 아동의 쓰기 발달을 살펴본 Yoon & Pae(2019)의 연구에서도 초등 2학년뿐 아니라 4학년에서도 띄어쓰기 오류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문장쓰기가 발달중인 시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지표가 단어, 어절, 문장 수준에서의 쓰기 분석이라면 마지막 응집성 지표는 글의 연결성과 응집력을 살펴보는 전반적인 글 수준에서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응집성 지표에서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과제에서 제시한 도입 문장의 맥락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작성하거나(예: 가방쓰기 주제에서 글씨를 잘 못 쓴다는 내용) 제시된 장소의 맥락과는 관련이 있지만 도입 문장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내용(예: 아침 조희 주제에서 갑자기 달리기에 대한 내용)으로 쓰는 것이 더 빈번하였다. 반면 일반 아동은 대체적으로 제목 및 도입 문장과 의미적으로 연결되며 응집력 있게 연결되도록 문장을 작성하였다.

흥미로운 특성 중 하나는 일반 아동은 대부분 문어체로 작성한다면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구어체(예시: 젤/제일)로도 빈번하게 쓰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글쓰기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언어발달장애 아동은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탈맥락화된 언어의 이해와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문어에 맞는 적절한 사용역(register)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글 쓰기에서 구어체로 글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Scott & Windsor, 2000). 문어에 적절한 어휘와 문장 형태, 그리고 문어에서 문장 간의 연결을 도와주는 결속장치의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작성한 6개의 문장에 대해 어휘와 구문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글쓰기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어휘는 서로 다른 낱말 수(NDW), 총 낱말 수(TNW)로 분석하였다. K-CELF-5는 어휘와 관련된 채점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NDW와 TNW를 통해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쓰기에 나타난 어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어휘지식의 부족은 문장 쓰기에서도 나타났다. 어휘발달지연 아동들은 NDW와 TNW 모두 일반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NDW는 어휘 다양도적인 측면에서 복잡성(complexity)로 간주하며, TNW는 생산성(productivity)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하면,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전체 문장에 포함된 어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부족한 어휘 지식이 쓰기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NDW를 어휘 다양도 측면으로 간주하고 학령기 언어발달장애와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Scott & Windsor(2000) 연구에서는 NDW는 두 집단을 변별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위의 연구와 다른 점은 본 연구는 집단 선정시 어휘 검사로 어휘지식이 부족한 아동을 선정하여 어휘에서의 차이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법 및 구문은 총 T-unit 수(T-unit), T-unit 당 평균 낱말 길이(MLT-unit), 그리고 T-unit 당 종속절 수인 절 밀도(CD)를 분석했다. 결과는 K-CELF-5의 문법 및 구문 지표의 결과와 일치했다.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T-unit의 수가 적었으며, T-unit 당 평균 낱말 길이가 적었고 T-unit 당 종속절의 사용 빈도가 낮았다. 즉, 문장이 짧고 덜 복잡하며 정교하지 못한 문장으로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T-unit 당 평균 낱말 길이는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의 연구에서 문법 및 구문적 복잡성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Scott, 2020). T-unit 당 단어의 수와 절 밀도(T-unit 당 종속절 수)는 T-unit 내에서 다양한 구와 절 등이 포함됨으로써 복잡성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문법 및 구문적 복잡성의 측면에서 단순한 문장 쓰기가 더 빈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법 및 구문에서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어휘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은 쓰기에서 복잡한 언어구조로 문장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척도 점수로 쓰기를 평가했을 때 일반 아동보다 완성된 문장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문장을 쓰더라도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했고 문장에 포함된 전체 어휘 수도 적었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도 짧았다. 또한 문법적 오류가 더 빈번하고, 종속절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문의 사용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자법 오류와 심표와 같은 부호 쓰기 오류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글의 응집성 측면에서도 제목 및 앞의 문장과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문장을 쓰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수용 어휘 능력으로 선정하였지만 글쓰기에 나타난 특성은 전형적인 학령기 언어발달장애의 특성과도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언어발달장애가 아닌 어휘지식에서만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에게도 구어와 문어 모두에서의 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어휘 지식의 확장뿐 아니라 복잡한 문장 구조로 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언어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어휘력이 낮은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글쓰기 특성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어휘와 문법 및 구문 지표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쓰기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Ahn, E. J., & Kim, J. (2010). Expository writing abilities of school-ag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15*, 321-336.
[안은주, 김정미 (2010). 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의 설명담화 쓰기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15**, 321-336.]
- Babayigit, S., & Stainthorp, R. (2010). Component processes of early reading, spelling, and narrative writing skills in Turkish: A longitudinal study. *Reading and Writing, 23*, 539-568.
- Berninger, V. W., & Winn, W. D. (2006). Implications of advancements in brain research and technology for writing development, writing instruction, and educational evolution. In C. A. MacArthur, S. Graham, & J. Fitzgerald (Eds.), *Handbook of writing research*(pp. 96-114). New York: Guilford Press.
- Berninger, V., Hart, T., Abbott, R., & Karovsky, P. (1992). Defining reading and writing disabilities with and without IQ: A flexible developmental perspective. *Learning Disabilities Quarterly, 15*, 103-118.
- Bishop, D. V. M., & Clarkson, B. (2003). Written language as a window into residual language deficits: A study of children with persistent and residual speech and language impairments. *Cortex, 39*(2), 215-237.
- Dockrell, J. E., & Connelly, V. (2009). The impact of oral language skills on the production of written text. *Teaching and Learning Writing, 6*, 45-62.
- Dockrell, J. E., Lindsay, G., Connelly, V., & Mackie, C. (2007). Constraints in the production of written text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s. *Exceptional children, 73*(2), 147-164.
- Gillam, R. B., & Johnston, J. R. (1992). Spoken and written language relationships in language/learning-impaired and normally achieving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5*(6), 1303-1315.
- Hall-Mills, S., & Apel, K. (2015). Linguistic feature development across grades and genre in elementary writing.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46*, 242-255.
- Hayes, J. R., & Flower, L. S. (1980). Identifying the organization of writing processes. In L. W. Gregg & E. R. Steinberg (Eds.),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pp. 3-3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Juel, C., Griffith, P. L., & Gough, P. B. (1986). Acquisition of literacy: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in first and second grad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4), 243.
- Kellogg, R. T. (1994). *The psychology of wri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A. H. (2016). Predicting writing composition of elementary students with or without writing difficulties using curriculum-based measure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9*(1), 45-73.
[김애화 (2016). 쓰기 교육과정중심측정을 통한 초등학교 쓰기부진학생의 작문 성취도에 대한 예측 변인 연구. **초등교육연구, 29**(1), 45-70.]
- Kim, Y. T., Hong, G. H., Kim, G. H., Jang, H. S., & Lee, J. Y. (2009).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서울: 장애인복지관.]
- Koutsoftas, A. D. (2016). Writing process products in intermediate-grade children with and without language-based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9*(6), 1471-1483.
- Kwon, E. J., & Pae, S. Y. (2006). Story composition ability of Korean children in Chuncheon with a story generation task.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5*, 115-126.
[권유진, 배소영 (2006). 이야기만들기 과제를 통한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 **언어치료연구, 15**, 115-126.]
- Kwon, E. J., Jin, Y. S., & Pae, S. Y. (2018). *Korean Narrative Assessment*. Seoul: Hakjisa.
[권유진, 진연선, 배소영 (2018). **한국어 이야기 평가(KONA)**. 서울: 학지사.]
- Lee, H. N., & Yoon, H. J. (2021). The syntactic ability of third and fourth graders with and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retelling of comparison and causation expository discours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2*(4), 155-174.
[이한나, 윤효진 (2021). 초등 3~4 학년 다문화가정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의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설명담화 다시 말하기에 나타난 구문구조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2**(4), 155-174.]
- Newcomer, P., & Barenbaum, E. (1991). The written composing ability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from 1980 to 1990.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4*, 578-593.
- Olinghouse, N. G., & Leaird, J. T.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measures of vocabulary and narrative writing quality in second-and fourth-grade students. *Reading and Writing, 22*, 545-565.
- Pae, S. Y., Jang, H. S., Lim, S. S., & Lee, J. H. (2004). *The Korean Sentence Comprehension Test*.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배소영, 장혜성, 임선숙, 이지희 (2004). **구문의미이해력검사(KOSECT)**. 서울: 장애인복지관.]
- Pae, S. Y., Kim, M. B., Yoon, H. J., & Jang, S. (2015). *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Seoul: Hakjisa.
배소영, 김미배, 윤효진, 장승민 (2015). **한국어 읽기검사(KOLRA)**. 서울: 학지사.

- Pae, S. Y., Yoon, H. J., Seol, A. Y., & Jang, S. M. (2023). *The Korean version of Clinical Evaluation of Language Fundamental-5*. Seoul: Hakjisa.
[배소영, 윤효진, 설아영, 장승민 (2023). **한국판 핵심언어 임상평가(K-CELF-5)**. 서울: 학지사.]
- Park, H. O., & Chung, Y. S. (2008). A study of dictation errors and dictation error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ary stud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9(4), 367-395.
[박혜옥, 정용석 (2008). 초등학생의 받아쓰기 발달과 오류 특징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367-395.]
- Park, H. W. (2014). *Korean version of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second edition (K-CTONI-2)*. Seoul: Mindpress.
[박혜원 (2014). **한국 비언어지능검사 2 판(K-CTONI-2)**. 서울: 마인드프레스.]
- Price, J. R., & Jackson, S. C. (2015). Procedures for obtaining and analyzing writing samples of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46, 277-293.
- Puranik, C. S., Lombardino, L. J., & Altmann, L. J. (2008). Assessing the microstructure of written language using a retelling paradigm.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7(2), 107-120.
- Roth, F. P. (2000). Narrative writing: Development and teaching with children with writing difficulties.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20(4), 15-28.
- Scott, C. M. (2020). Language sample analysis of writ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contributions.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40(2), 202-220.
- Scott, C. M., & Windsor, J. (2000). General language performance measures in spoken and written narrative and expository discourse of school-age children with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2), 324-339.
- Yoon, H. J., & Pae, S. Y. (2019). Korean children's writing development with a short-text completion task.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4(3), 623-635.
[윤효진, 배소영 (2019). 짧은 글 완성하기를 통해 본 초등학생의 작문능력 발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4(3), 623-635.]
- Yu, G., & Jeong, E. H. (2007). Characteristics of writing in school-aged borderline intelligence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8(3), 231-247.
[유경, 정은희 (2007). 이야기쓰기활동을 통해 살펴본 학령기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장애아동의 쓰기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231-247.]

<국문 초록>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이야기글 쓰기 능력

윤 효 진 · 김 보 립

[목적] 본 연구는 초등 2학년의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이야기글 쓰기 능력을 살펴보았다. 이야기글은 척도 점수를 통한 분석과 아동이 작성한 글에 대한 어휘 및 구문 분석을 통해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글쓰기 능력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초등 2학년의 어휘발달지연 아동 15명과 학년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7명이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아동은 비언어성 지능이 85 이상이며, 쓰기 과제의 지문을 읽는 데 어려움이 없는 아동을 선정하기 위해 KOLRA의 해독 검사에서 표준점수 85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REVT 검사에서 백분위 10 미만인 아동이며, 일반 아동은 백분위 20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 아동에게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글쓰기 검사는 K-CELF-5의 쓰기 검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K-CELF-5의 채점 기준에 따라 척도 점수로 분석했을 때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문장의미완성도, 구문, 문법, 철자 및 응집성 모두에서 또래 아동보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작성한 총 6개의 문장에 대해 NDW, TNW, T-unit, T-unit 당 평균 낱말 길이, 절 밀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또래 일반 아동보다 수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어휘지식은 글쓰기 수준을 보여주는 예민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도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어휘가 부족하고 문법적 오류가 빈번하며, 짧고 단순한 문장을 산출하며, 철자 오류도 빈번할 뿐 아니라 제목이나 앞의 문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글을 작성하는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휘지식이 부족한 아동에게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쓰기에 초점을 둔 평가와 적절한 중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주제어 : 이야기글 쓰기, 어휘발달지연, 척도 점수, 어휘, 문법 및 구문